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스위스 종교개혁

신 현수 | 평택대학교

1. 머리말

오늘날은 범세계화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한 생활권이 되었다.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쉽게 갈 수 있다. 지구의 외딴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곧바로 알려지게 된다. 인터넷 망을 통해 세계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는 하나의 문화권에 있게 된다. 어느 한 사건은 그것이 일어난 곳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느 한 지역의 문화의 생성과 변화는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의 요인에 달려 있지 않고 세계 문화 특히 세계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있는 시대정신에 따른다. 이 시대정신은 세계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양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범세계화가 문화 변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글은 이 문제를 기독교의 전장에서 살핀다. 서양에서 14~15세기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어떻게 스위스에 종교 개혁이라는 새로운 종교 문화를 가져오게 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글에서 논증하려는 것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그 당시 이탈리아는 물론 모든 유럽의 삶과 문화를 지배한 시대정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범세계화 현상이며 그러한 현상으로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16세기 스위스 종교 개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¹⁾

먼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기본 성격을 살핀다. 14~15세기에 일어났던 이 운동은 단지 문학과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전 문화 영역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것은 그 당시 모든 유럽의 문화를 결정짓는 시대정신이였다. 그것은 범세계화의 현상이었다. 이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이탈리아를 넘어 모든 유럽으로 퍼져 가는 과정을 다룬다. 이 운동은 지역적으로도 모든 유럽 나라들에 퍼져 갔을 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스위스의 종교 문화 변동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알아본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스위스 종교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이 초래한 새로운 종교 문화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14~15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운동이었기에 새로운 종교 문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2.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기본 성격

오늘날 범세계화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관점—가령,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등—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범세계화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을 어느 한 영역에서 세계가 서로 공유하는 것에 제한하면 다른 영역에서의 세계화가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은 인간이 땅에서 살아가는 총체적 삶의 양식에 관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은 범세계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

1) A. McGrath, *Reformation Thought : An Introduction* (Oxford : Basil Blackwell, 1988), 29쪽.

몰음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 운동의 기본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와 관련된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서, 먼저 몇 가지 기본 용어들을 정의한다. 첫째, ‘르네상스’이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14~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문학 및 미술 부흥 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지난 세기 동안 역사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기가 갖는 중요성과 특징, 그 이전과 이후의 시대와의 관계, 그것이 일어나고 끝난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해되었다.²⁾ 1546년 기오비오(Paolo Giovio)는 르네상스가 ‘라틴 글자가 새롭게 태어났다(renatae)’고 여겨진 행복한 세기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어떤 역사가들 특히 버크하르트(Jacob Burckhardt)는 이 르네상스가 근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인간이 중세 시대의 공유 의식에서부터 떠나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³⁾ 하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르네상스를 정의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집단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맥그라드(McGrath)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도시 생활에 대하여(플로렌스의 시민적 인문주의), 정치에 대하여(parte Guelfa), 상업에 대하여(울 길드) 및 가족생활 등에 대하여 집단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고전 언어의 회복이나 개인의식의 발견의 관점은 르네상스의 한 면에 지나지 않는다. 르네상스는 이 면들을 넘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관계한 운동이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 가치에 의한 새로운 문화 운동이다. 이 보편 가치는 고전이 강조한 것이며 그 당시에 새롭게 발견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르네상스는 근대를 여는 문이었다.

둘째, ‘인문주의’이다. 이 말은 1808년 니트하머(Niethammer)가 처음으로 썼는데, 실천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대항하여 헬라나 라틴의 고전을 강

2) Paul O. Kristeller, *Renaissance Thought and the Arts : Collected Essays*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2쪽.

3) Jacob Burckhardt,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New York, 1935), 143쪽 McGrath, 윗글, 41쪽에서 따옴.

4) 윗글, 41쪽.

조하는 교육의 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⁵⁾ 이 말은 르네상스 때 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르네상스 때 대학에서 시, 문법 및 수사학과 같은 *studia humanitatis* (인문학)을 가르치는 사람, 곧 *umanista* (혹은 *humanista*)에 바탕을 두고 만든 말이었다. 특히 시세로(Cicero)나 퀸틸리안(Quintilian)이 이 말을 즐겨 썼는데 어떤 표어를 나타내는 것이었지 가치 체계나 연구의 분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후 15세기 초기에 이 *studia humanitatis* (인문학 연구)는 잘 정의된 일련의 주제나 저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역사나 도덕 철학뿐만 아니라 문법, 수사학 및 시는 언제나 포함되었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넓은 영역에서 법학이나 의학의 글들이 포함되었다.⁶⁾

이 인문주의란 말 역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는 믿음(Samuel Coleridge Taylor, 1812)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인간이 되는 자질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관심사와 관련한 사고와 행동의 체계를 뜻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 발전을 보인 그것의 본래 개념, 즉 고전 연구와 문화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있다.⁷⁾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고전을 익히고 고전 언어학에 힘을 기울이는 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물론 중세 문화와 교육을 벗어나지 않고 연속성에 있다. 하지만 라틴과 헬라의 고전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헬라어나 라틴어로 된 고전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폭넓게 원어로 연구되었다. 크리스텔러(Kristeller)는 그리스 로마의 고대가 물려준 전통 특히 그것의 문학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르네상스의 고전 연구가 이 시기의 문명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르네상스가 가져온 다른 지적 경향이나 성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양 유럽의 역사에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초

5) Kristeller, 위클리, 9쪽 볼 것.

6) R. J. Schoeck, “The Background of European Humanism: An Introduction,” John MacQueen(역음), *Humanism in Renaissance Scotlan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2쪽 볼 것.

7) 위클리, 10쪽 볼 것.

기 인문주의자들은 원전으로 돌아가라(*ad fontes*)고 외쳤다.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반에 인문주의자들이 고전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 인문주의자들이 왜 고전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였는가? 그러한 연구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목적에 대한 수단이었다. 그 목적은 그 당시에 유창하게 말을 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문주의자들이 고전을 연구한 것은 잘 쓴 글의 모델로서 영감과 방법을 얻기 위함이었다.⁸⁾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어떤 사상의 실제적 본질보다는 그러한 사상을 어떻게 얻고 표현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무엇보다도 고전 연구에 주로 관계한 운동이었고 이러한 것이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 독특한 문화적 표현을 낳게 하였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이해가 결국 크리스텔러로 하여금 인문주의가 여러 형태에서 말과 글을 유창하게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화 및 교육 운동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른다.¹⁰⁾

하지만 이러한 이해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쇼에크(Schoeck)가 잘 지적한 바대로¹¹⁾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었고, 고전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었으며, 이것이 고대 세계를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열망에 이르게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새로운 철학, 즉 스콜라주의에 반발하여 일어난 철학이라고 한다. 스콜라주의 시대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라 한다면, 이 시대를 플라톤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어떤 하나의 철학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상과 표현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다.¹²⁾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플라톤 철학과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고, 신-스토

8) McGrath, *윗글*, 43쪽.

9) Paul Oskar Kristeller, "The Humanist Movement", *Renaissance Thought : The Classic, Scholastic, and Humanist Strains* (New York : Harper Torchbooks, 1961), 7-8쪽.

10) McGrath, *윗글*, 45-46쪽.

11) Schoeck, *윗글*, 1쪽.

12) Schoeck, *윗글*, 1쪽.

아주의와 신-에피쿠르스주의가 병존하였다. 또한 이 시기 동안에 대학들은 스킴라주의를 계속하여 가르쳤다. 또한 인문주의자들은 주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헬라이어와 라틴어를 공부하고 미술과 조각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철학에는 전혀 공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선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유창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것과 비교해 보면 철학에 힘을 기울인 인문주의자들의 글을 보기가 어렵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중세의 카리스마적 교권에서 자유하고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모든 르네상스 인문주의 연구나 글들의 핵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한 논의가 놓여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피코 델라 미란돌라(Pico della Mirandola)의 *Oratio de hominis dignitate*였다.¹³⁾ 이 운동은 맹목적 신앙, 환상 및 미숙한 편견으로 가득한 중세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적 인간성을 충분히 의식하는 근세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신과 관계시키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본질적으로 반-종교적 현상이며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의 세속주의를 미리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인문주의자들은 두드러지게 종교적이었다. 그들은 교회를 제거하기보다는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인간의 세속적 관심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중세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을 따르는 세속적 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식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이러한 죄의식과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세는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페트라르카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보다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보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다.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 윗글, 2-3쪽.

1317-75)의 데카메론(Decameron)은 잡다한 이야기를 모은 책인데, 수도자나 성직자들의 부도덕을 고발하며 회화화하고 있다. 단테의 신곡은 교황 제도를 비판한다.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정치사상 역시 넓은 스펙트럼을 보였다. 아우구스티누스 트리암파투스(Augustinus Triumphatus)와 같은 이는 교황의 절대 권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파두아(Padua)의 마르시글리오(Marsiglio)와 같은 이는 황제 또는 교회협의회의 우위적 권위를 같은 정도로 강조하였다. 한스 바론(Hans Baron)은 인문주의가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자의 운동이라 한다. 이 운동은 시세로(Cicero)를 연구함으로써 그의 정치사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다국적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특성을 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어떤 시도도 설득력을 잃는다. 그것은 그 당시 미술, 음악, 문학, 정치와 과학 및 경제 이론, 그리고 과학과 철학의 영역에서도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였다.¹⁴⁾ 그것은 이탈리아의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괄한 시대정신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뜻에서 이 운동은 범세계화의 현상이다.

시대정신으로서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은 이탈리아에만 머물지 않고 전 유럽으로 퍼져 갔다. 그러면 이러한 퍼짐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한가?

3.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확산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15~16세기에 걸쳐서 지역적으로 이탈리아를 넘어서 전 유럽으로 퍼져 갔다. 이탈리아에 공부하러 간 대부분의 외국 학생들은 자기들의 분야에서 특히 법학과 의학 분야에서 학위를 얻기 위해 공

14) Kristeller, "The European Diffusion," 69-70쪽 볼 것.

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탈리아에 있을 때에 인문학도 공부하였으며, 고귀한 고전 사본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¹⁵⁾ 또한 그 당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특히 은행가, 기업가, 법률가, 학자들이 자기 나라 밖에서 살았다. 이들 중에 많은 수가 인문주의적 교육을 받고 인문주의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궁중 시인이거나 인문주의자로서뿐만 아니라 비서나 개인 교수로 종사한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외국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들의 영향은 인문주의 운동을 확산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문주의자들의 빈번한 서신 교환이 있었다. 그 가장 대표적 사람은 에라스무스(Erasmus)이다. 그와 나눈 서신들은 3000이 넘는다. 크리스텔러가 잘 지적한 대로, 이것은 정보 교환의 좋은 수단이었다.¹⁶⁾ 이외에도, 인문주의자들이 복사한 고전 사본들과 인문주의자들의 책이 인쇄술의 발달로 유럽의 모든 도서관에 비치되게 된 것이 이러한 영향의 동인이 되었다.¹⁷⁾

1) 북유럽의 인문주의

모든 발전 단계에서 이탈리아 인문주의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북유럽의 인문주의의 기본 이상은 첫째 *bonae litterae*, 즉 고전 시대의 유형을 따라 글을 잘 쓰고 말을 유창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교회의 공동체적 부흥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프로그램이었다. 라틴어 슬로건 *Christianianismus renascens* (다시 태어나는 기독교)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요약해 준다. 주관적으로 개인을 의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개인이 속하는 공동체(교회와 국가)의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북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16세기 초기에 프랑코 이탈리아의 전쟁이 가져온 비극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화주의 태도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국가간의 평화와 상호 이해에 대한 추구가 그 당시 모든 인문주의자들 특히 스위스

15) 윌글, 75쪽과 Schoeck, 윌글, 4쪽 볼 것

16) Kristeller, "The European Diffusion," 76쪽.

17) 윌글, 75쪽과 Schoeck, 윌글, 5쪽 볼 것.

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다.¹⁸⁾

북유럽의 인문주의를 발전시킨 대표적 인물은 로테르담의 데지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1466-1536)였다. 그는 ‘인문주의자들의 왕자(the prince of the humanists)’라고 흔히 불려진다. 그는 이탈리아의 세속적인 인문주의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실제적인 개혁을 그가 추구해야 할 최종의 목표로 정하고 당시의 교회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1495년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공부할 때 그 당시 스콜라 신학에서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¹⁹⁾ 이것에 대한 반항을 그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그는 인문주의자들의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하고 있었다.²⁰⁾ 그러나 그 당시 잉글랜드 옥스퍼드(Oxford)에서 바울 서신을 강의하고 있었던 콜레트의 영향으로 그는 성서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에 이 인문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스콜라 신학에서부터 신학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믿음의 삶을 활기 있게 하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았다.²¹⁾ 1500년에 파리로 돌아온 후 1536년에 죽기까지 그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학문과 저술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것으로 그는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는 Paris, Louvain, Venice, Cambridge, Basel, Friburg 등의 도시를 자주 다니면서 바쁜 삶을 살았다.²²⁾ 책이 출판되고 그의 명성은 점점 커 갔으며, 당대 유명한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1500년에 파리로 돌아온 후 그의 첫 번째 그리고 유명한 저술은 *Adagia* 였다. 이것은 라틴 고전에서 뽑은 800여 개의 짧은 격언집이었다. 그 후 그는 그리스어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서 공부에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²³⁾

그의 교회 개혁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Enchiridion mil-*

18) McGrath, *위글*, 48쪽.

19) John Olin(위음), *Christian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 Selected Writings of Erasmus*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1975), 4쪽.

20) 위글, 5쪽.

21) 위글.

22) 위글, 6쪽.

23) 위글.

itis Christiani (기독교 군사 지침서)에서 기독교의 생명력은 성직자보다 평신도에게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신앙의 본질은 개인의 내적 상태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윤리적 삶을 그는 강조하였다. 이러한 신앙은 원어 성서를 읽음으로써 회복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신약 원어 성서를 번역하였고 라틴 별게이트 성서의 잘못을 밝혀냈다. 이러한 성서 연구는 그로 하여금 두 성례(세례와 성만찬)가 성서적임을 강조하게 하였다. 그는 또한 교부들의 글을 소개함으로써 바른 교부 신학을 정립케 하였다.

동스위스 지역에서의 인문주의 운동은 15세기 말 비엔나 대학과 바젤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대표적 인물은 Joachim von Watt, alias Vadian, Vadian, Xylotectus, Beatus Rhenanus, Glarean and Myconius, Thomas Wyttenbach 및 Zwingli 등이다. 특히 쾰빙글리는 인문주의 대학들에서 공부했고 그의 초기 저술들은 인문주의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당시 유럽 최고의 인쇄소가 스위스에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 Zurich의 Froschauer와 Basle의 Froben과 Cratander 등이다.²⁴⁾

스위스 인문주의의 기본 정신은 도덕이었다. 스위스 인문주의자들에게 기독교는 일련의 교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삶의 방식이었다.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도덕적인 행위를 규정한 책으로 여겼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스위스 인문주의자들에게 교회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주로 교회의 도덕과 교인 개인의 인격적 도덕적 부흥에 관한 것이었다. 쾰빙글리가 1519년에 쾰리히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스위스 인문주의자들의 도덕주의를 잘 드러내었다. 어거스틴의 이른바 ‘은총론’이 그의 사상에 1520년까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때까지 그의 개혁 운동은 그 당시 스위스 인문주의 연대주의자들의 특징인 도덕주의자들의 교육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인문주의 운동은 이 나라에 출판 기술이 도입되고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473년 리용(Lyons)에서 처음으로 책이 출판되었다. 이곳은 그 후 유럽에서 세 번째 가는 주요 출판 중심지가 되었다. 15세기 말과 16

24) McGrath, 앞글, 59쪽.

세기 초반 동안에 프랑스의 출판 과정을 보면, 이것이 인문주의 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의 그 과정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 수 있다. 이 당시 이른바 ‘새로운’ 언어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새롭게 발견하고 출판하였다. 대표적인 경우는 돌레(Dolet)였다. 그는 리옹에서 그의 저작의 대부분을 출판하였는데, Ciceronianus(1540), 라틴 명구집(1539) 및 Observations on the comedies of Terence(1543) 등이 포함되었다.²⁵⁾

프랑스 인문주의 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Lefevre d'Étaples이다. 그는 파리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였다. 그는 Cardinal Lemoine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선 그의 주석, 편집 및 번역은 명확성, 정확성 및 교육학적 방법에서 뛰어났다. 그는 신학자로서 이탈리아에 여행해서 피치노(Ficino)를 만나 그의 영향으로 신비적 관심을 갖게 되나 실천적 행동을 버리지 않았다. 수학적 사변과 여러 형태의 상징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였는데 이 모두는 그를 따르는 학생들과 사람들의 도덕과 영적 교육에 쓰기 위함이었다.²⁶⁾

둘째는 Guillaume Budé이다. 뛰어난 법률학자, 변호사 및 왕의 자문위원으로서 그는 16세기 초에 두 전문 저술을 펴냈다. 그 하나는 고대 화폐에 관한 것(*De aese*)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원문(*Annotations to the Pandects*)이다. 이러한 저술은 역사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제들을 실천적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책 「헬레니즘에서 기독교로의 전이에 대하여(On the Transition from Hellenism to Christianity)」는 은총의 교리에 기초한 믿음을 표시한 것이었다. 이 책은 그가 헬라어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지체를 기독교 복음 선포의 거룩함 아래 두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의 인문주의 운동은 언어적 헬레니즘과 강력한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 인문주의 운동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프랑스의 법적 개혁이

25) Fean-Claude Margolin(tr. John L. Farthing), *Humanism in Europe at the Time of the Renaissance* (John L. Farthing 옮김)(Durham, NC : The Labyrinth Press, 1989), 23쪽

26) 윗글, 24쪽.

었다. 16세기 초 Francis 1세의 치리 아래에 있던 프랑스 전제 군주국은 점점 중앙 집권적 행정으로 향하면서 법적 개혁을 프랑스 현대화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법률 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Bourges와 Orleans 대학을 중심으로 일련의 학자들을 지원하여 보편 원칙에 바탕을 둔 일반 법률 규정의 이론적 연구를 하게 하였다. 이 일에 앞선 사람이 Budé였다. 그는 프랑스의 새로운 법적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조리 있고 경제적인 로마의 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창하였다.

프랑스는 고전적 법률 문헌을 읽을 때 곧바로 그 원전을 원어로 읽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그 당시 이탈리아가 그 고전적 법률 문헌을 본문에 대한 주해나 Bartholis Accursius와 같은 중세 법학자의 주석에 비추어서 읽은 관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²⁷⁾ 프랑스의 이러한 절차는 바로 인문주의의 한 특징인 *ad fontes*의 한 현상이다.

프랑스 인문주의의 운동은 신학적으로 스콜라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점차 성서의 본문을 비평하고 학문적으로 주석하며 성서를 그 지방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중세에 나타났던 신학을 떠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르본느(Sorbonne)에 있는 스콜라신학 수호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²⁸⁾

16세기 영국의 인문주의의 운동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초기에는 이 대학들이 고집한 조상 전래의 전통들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Colgne에서 온 한 출판가가 한 고전 작가의 작품, 곧 Cicero의 *Pro milone*를 편집하여 잉글랜드에서 출판하면서부터 “옥스퍼드 개혁자들”의 이른바 ‘새로운 배움’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이 점차 헬라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탈리아에 문을 열었으며, 플로렌스의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운동이 잉글랜드 전역으로 특히 런던의 성직자, 법률가 및 외교관 등과 같은 엘리트 그룹으로 퍼져 갔다. 인문주의의 “대사”를 수천 명

27) McGrath, 윗글, 50쪽.

28) 윗글, 24-25쪽.

이나 대륙으로 보내기도 하였다.²⁹⁾

Cambridge는 다소 늦게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른바 ‘흰말 모임’(White Horse Circle)과 1520년대에 Martin Luther의 최근 저술들을 탐독하고 토론하기 위해 모인 Robert Barnes와 같은 사람들이 그 중심이었다. 이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 인물은 콜레트(John Colet)였다. 그는 성직자, 신학자 및 성 마리아 대학의 교수였고 후에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의 주임 사제가 되었다. 1503년 특별히 가난한 집 출신의 아이들을 위해 그는 첫 인문주의 학교를 세웠다. 1496년과 1540년 사이 그는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피치노(Ficino)를 만났다. 그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그는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성서를 보다 깊숙이 깨닫고 당시 그가 권위 있는 성서로 받아들였던 라틴 벌게이트 역본 성서의 어려운 구절들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1499년과 1500년 겨울 그의 고린도서와 로마서 주해 강의는 에라스무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는 에라스무스에게 인문주의적 과제를 부여했다. 하나는 그를 성 바울 학교의 중요한 자리에 추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새 문법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사람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영국의 인문주의 운동의 유명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은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였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법률가, 모범적인 가정생활 및 지적 삶을 균형 있게 한 사람이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Lucian에 대한 역사적 연구, 번역들 및 주해들을 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의 지식, 유머, 철학을 담은 걸작품 *Utopia*를 Froben에 의해 바젤에서 출판한 것이다.³⁰⁾

영국의 인문주의는 15세기의 이탈리아 인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르네상스의 정신을 직접 전수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갔다. 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John Gunthorpe와 William Selling이다.

북해 연안의 저지대 나라들에서의 인문주의 운동은 Zwolle, Deventer, Haarlem, Bois-le-Duc, Gouda, Louvain 및 Antwerp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Jaarlem 출신의 화가 Laurens Janszoon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쇠로 된 타

29) 윗글, 26쪽.

30) 윗글, 26-27쪽.

이프를 발명하였다. 15세기의 마지막 10년부터 그 이후로 학문 연구와 문화의 관문인 학교들과 여러 출판사가 문을 열었다. Rudolphus Agricola는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서 Theodore Gaza와 Guarino da Verona를 만났고, 자기 나라의 젊은 학자들을 위해서 그의 철학과 수사학을 담은 책 *De inventione dialectica*를 저술하였다. 그들이 뛰어난 옛 저술가들의 저술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유명한 인문주의 교육기관인 Louvain의 Collegium Trilingue(1517)에는 ‘세 언어’(히브리어, 헬라어 및 라틴어)로 구성된 기본 교과 과정이 있었다.

이곳 인문주의 운동의 특성은 화란의 평신도 그룹 ‘공동 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이 추구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보다 높은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삶, 선행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도덕 실천에 대한 관심, 형이상학과 추상적인 정교함에 대한 경시, 조용히 심지어 느리게까지 하면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최종적 승리에 이르는 것 등이다.³¹⁾

독일계 나라들에서의 인문주의 운동은 이른바 *Reichsstaadt* (제국의 도시)라고 불리는 Augsburg, Nuremberg, Mainz, Strassburg, Basle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바로 이곳들에서 인문주의에 바탕을 둔 문화의 원천인 대학교, 대학, 출판사, 미술 센터 등이 세워졌고 여러 형태의 학문 훈련들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 인물은 Konrad Celtis, Johannes Reuchlin, Johannes Trithemius, Thomas Murner, Sebastian Brant, Jacobus Wimpheling, Heinrich Bebel, Willibald Pirckheimer 등이다.

2) 이베리아 반도의 인문주의 운동

이곳의 인문주의 운동의 기본 특성은 문학적, 철학적 및 종교적 운동이었다. 대표적 인물은 에라스무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Juan Luis Vives (1492-1540)였다. 일찍이 자기 나라를 떠나 북해 연안의 저지대 나라들과

31) 윗글, 28쪽.

잉글랜드에서 정착하다가 브뤼셀(Brussels)에서 마지막 생을 마친 그는 언어학, 교육학(젊은이들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기독교 윤리(여성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관한), 사회 문제(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에 관한), 정치 이론(정부, 전쟁 및 평화의 문제에 관한) 등에 관한 저술들을 남겼다. 특히 인문주의자로서 그는 유럽의 연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515년과 1525년 사이 에라스무스의 사상은 이 반도에 있는 지적 종교적 엘리트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의 책이 전 스페인에 걸쳐서 특히 Seville에서 출판되고 많은 그의 책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그의 영향력이 이곳에서 꾸준히 지속되었음을 뜻한다.

포르투갈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늦게 무르익었으나 영향은 컸다. 15~16세기에 활동한 인문주의자들은 Luis Texira, Henrique Caiadeo, Marthinho de Figueiredo 및 Aires Barbosa 등이다. 특히 de Resende는 The antiquities of Lusitania란 제목의 중요한 연구 서적을 펴냈고 포르투갈 말로 Evora 시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곳의 인문주의는 스페인 제국이 임마누엘 1세(1495-1521)와 요한 3세(1521-1557) 치리 때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현대 시 형태의 이탈리아 문학이 포르투갈에 소개되었다.³²⁾

3) 중앙 및 동유럽의 인문주의 운동

이탈리아의 인문주의가 헝가리, 보헤미아 및 폴란드의 인문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영향은 Ferraro, Bologna 혹은 Padua에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에 의해서였다. 부다페스트(Budapest) 궁정은 15세기 후반에 인문주의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다. Matthias Corvin(1458-1490)은 문학과 미술의 걸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하였다. 그의 자문 위원인 Janos Vitez는 헝가리 최초의 인문주의자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Vitez는 왕에게 자문하여 놀랄 만한 도서관 Corviniana를 짓게 하였다. 학자들은 라틴어로 글을 썼다. 시인이자 Pecs의 주교인 Janus Pannonius(1434-1472)는 신플라톤주의

32) 윗글, 36-37쪽.

를 고국에 소개하였고 또한 사랑의 시를 썼다.³³⁾

15세기에 이르러 체코의 인문주의는 개혁자 후스(John Hus)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에게 종교, 정치 및 문학은 모두 하나를 이루어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대부분 라틴어로 글을 썼으나 체코의 언어를 잊지 않았다. 이외에도 프라하 대학의 학장 Viktorin Kornel (1460-1520)는 법적 견해와 시에서 유창함을 보였고, 프라하의 Gregor Gelenius는 Cicero, Petrarch 및 Erasmus에 관한 번역물과 주석들을 펴냈다. 이곳의 인문주의 운동은 한마디로 르네상스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나게 나타내 보여 주었다.³⁴⁾

폴란드에서 인문주의 운동은 코시미르(Cosimur) 3세가 통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364년 그가 Bologna 대학교의 형태를 따라 세운 Cracow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문주의 문화가 꽃피었다. 대표적 인물은 15세기에 Longinus의 Jan Dlugosz(1415-1480), 혹은 Jan Ostorog이고 16세기에는 Adreas Frycz Modrzewski 등이다. 문학과 철학 부문에서는 16세기를 거치면서 뛰어나게 표현되었다. 이곳의 인문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정치적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리고 이곳의 지적 엘리트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라틴어로 표현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와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곳에서도 같이 그 당시 인문주의 물결은 종교 개혁이라는 급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³⁵⁾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지역적으로도 이탈리아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모든 유럽 나라들로 퍼져 갔다. 그것은 전 유럽의 문명에 넓고도 깊게 영향을 끼쳤다.³⁶⁾ 그것은 한마디로 15~16세기 동안에 모든 유럽 국가에서 꽃을 피운 시대정신이었다. 이러한 시대정신으로서 그것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나라들의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

33) 윗글, 37-38쪽.

34) 윗글, 38쪽.

35) 윗글, 38-39쪽.

36) Schoeck, 윗글, 3-4쪽. Denys Hay, "The Reception of the Renaissance in the North," *The Italian Renaissance in its Historical Backgr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179-203쪽과 Kristeller, "The European Diffusion of Italian Humanism," 69-88쪽 볼 것.

었다. 바로 이것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범세계화의 현상임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면 범세계화 현상으로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종교 문화의 변동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이 문제를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16세기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핌으로써 알아보고자 한다.

4.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스위스의 새로운 종교 문화

1)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스위스 종교 개혁에 끼친 영향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성을 띤 사회, 문화 및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왔다. 그 당시 스위스 기독교회 역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진리를 선포하고 변증해야 했다. 이것의 산물이 종교 개혁이었다. 기독교회는 이제 중세의 모습을 탈피하는 새로운 종교 문화를 이루게 하였다. 16세기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³⁷⁾ 그러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스위스 종교 개혁에 끼친 영향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한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은 스위스 종교 개혁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스위스 종교 개혁 운동은 1500년대 초기에 비엔나와 바젤 대학에서 인문주의자들의 그룹(‘신도회’라고 보통 알려짐)이 생기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³⁸⁾ 특히 에라스무스가 쾰빙글리에게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쾰빙글리는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바젤에 있을 때 그를 만났고, Froben의 출판물을 통해서 그의 헬라이어 신약을 보았고 그의 사상과 방법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³⁹⁾

37) McGrath, 앞글, 27쪽 볼 것.

38) 앞글, 59쪽 볼 것.

프랑스의 법적 인문주의 운동은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John Calvin)의 종교 개혁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 운동이 한창일 때 그는 당시 지성적으로 앞서 가던 Orleans와 Bourges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유능한 법률가가 되었고, 후에 그가 제네바(Geneva)의 계약, 물건 및 법적 절차에 관한 법과 명령'을 법제화하는 일에 기여했다.⁴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는 이 운동과 직접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성서 주석가요 설교가인 그가 그 당시 프랑스 법적 인문주의자들 특히 부데(Bude)로부터 배운 것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성서를 직접 그 원어(히브리어와 헬리어)로 읽어야 할 필요성, 성서 원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성서를 해석할 때 그 본문의 언어적 역사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설교할 때 성서 본문 지평과 듣는 청중의 당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인문주의자들(Bude)처럼 Calvin에게 있어서 고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의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Cicero가 사람들을 고대 자연 종교에서 이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맥그라드(Mcgrath)가 잘 지적한 대로, 프랑스 법적 인문주의가 Calvin에게 끼친 영향은 고전 문서들을 1550년대의 제네바 시의 상황과 상호 교류하도록 하는 동기와 방법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¹⁾

스위스 종교 개혁은 철저하게 르네상스 인문주의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 및 사제들에서 찾지 않고 성서의 말씀에서 찾으려 했다. 그들은 성서의 원문을 연구하고 성서 교훈의 현실적 타당성을 모색하고 실천적으로 적용

39) 윌글.

40) 윌글, 50-51쪽 볼 것.

41) 윌글, 51쪽.

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이것을 통해 중세의 왜곡된 기독교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들은 성서 말씀이 교회 개혁의 열쇠가 된다고 믿었다. 그 말씀이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바른 기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라는 개혁의 표어를 주창한 것은 바로 인문주의자들의 ‘고전으로 돌아가라’(ad fontes) 정신의 한 실천이었다. 기독교의 고전은 바로 성서기 때문이다. 런던의 John Colet의 성서에 대한 역사적 인격적 이해, Jacob Wimpheling(1450-1528)의 고전 연구, Jacques Leevre의 깊은 연구, 히브리어와 유대 신비주의 학자 Reuchlin(1455-1522) 및 다른 인문주의자들이 모두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이 단순한 마음으로 성서에 집중하게 하는 준비작업을 하였다.⁴²⁾

(2) 이와 같은 오직 성서의 정신은 이른바 ‘스콜라주의의 폭력’을 대체하는 방법이 되었다.⁴³⁾ 스콜라 신학은 스위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스위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나라의 신학계를 지배하였다. 하지만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 운동을 폈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물론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 역시 이 스콜라 신학과 싸우는 것을 신학의 과제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보기에 스콜라 신학은 그 내용에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며 또한 지성적이지 않고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신학보다 단순하고 표현이 매끄러운 신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이었다.

(3)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ad fontes’의 원리는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이 교부들의 글들을 강조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에게 교부들의 글은 바른 신앙과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인문주의자들은 교부 시대의 글들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것들이 기독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성과 감동적인 표현을 갖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스위스 종교 개혁자는 교부들 특히 오리겐(Origen)과 제롬(Jerome)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 쾰빙글리가 교부

42) Anthony Goodman / Augus MacKay(위음), *The Impact of Humanism on Western Europe* (London : Longman, 1990), 28쪽 볼 것.

43) 위글, 30쪽.

어거스틴(Augustine)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1520년부터이다. 이러한 태도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이 컸다. 에라스무스는 1500년대 초기에 오리겐을 선호하였으나 후에 제롬을 좋아했다. 그 이유는 그의 헬라이어 신약 본문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

(4) 이것과 관련하여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 고전인 히브리어 성서와 헬라이어 성서 및 라틴어로 된 교부들의 글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인문주의자들이 발전시킨 고전 원어와 문학 연구 그리고 발전한 인쇄술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5)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것을 강조하였다. 신앙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겸손과 그에 대한 순종과 같은 일련의 내적 태도를 심어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은 물론 어떠한 개혁 프로그램도 외적인 문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우선적 강조는 바로 내적인 부흥의 필요성이었다.⁴⁴⁾

(6)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교리보다는 도덕과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삶의 법칙이다. 이것은 에라스무스의 *philosophia Christi*(그리스도의 철학)에게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에게 갖는 관계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본보기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imitatio Christi*(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초기 스위스 종교 개혁은 교회가 믿는 교리보다 교회의 삶과 도덕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쾰링겐에게 있어서 교회의 개혁은 그것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보다 그것이 실천하고 있는 삶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초기의 개혁 운동은 쥘리히 교회의 실천에 관한 것이었다.

(7)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 교육, 즉 그들의 개혁 사상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종교 개혁을 교육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약 성서와 초기 교회 교부들이 담고

44) McGrath, 앞글, 60쪽 볼 것.

있는 사상에 기초를 둔 인간의 과정이다.⁴⁵⁾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 방법에 관하여 열정을 보였다. 이 교육의 이론과 실천 방법 연구에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의 공헌이 컸다.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훈련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대상으로 남자는 물론 여자들, 대학 학생 혹은 라틴어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 모두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사상은 이미 인문주의자 토마스 무어나 필립 멜랑크톤(Philip Melancth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교육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⁴⁶⁾ 그 당시 인문주의는 본질적으로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이었다. 16세기 초반의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교육자들이었다.⁴⁷⁾

(8)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거룩함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일상적인 삶에서 추구하였다. 거룩은 믿음의 삶의 목표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은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영역에 있지 않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성서는 인간이 이러한 세상에서의 도덕적 삶을 살아가게 해 주는 지침이 된다고 이해했다. 이것은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이다.⁴⁸⁾ 인문주의자들이 이해하는 바른 신앙은 교회보다는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다.

(9)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창조 질서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쓰빙글리와 칼빈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즐겨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성만찬 이해에 잘 나타나 있다.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에게 그의 영원한 약속을 깨닫게 하는 매개가 된다.

45) 윌글.

46) Goodman / MacKay, 윌글, 30쪽.

47) McGrath, 윌글, 61-65쪽 볼 것.

48) Goodman / MacKay, 윌글, 27쪽 볼 것. C. Trinkaus / H. Oberman, *The Pursuit of Holiness in late medieval and Renaissance Religion* (Leiden, 1974).

(10) 위의 것과 관련하여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창조 질서인 인류의 보편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 자유 및 자율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증거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을 종교와 교권주의의 노예로 삼는 그 당시 종교의 현실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러한 보편 가치의 강조는 인문주의자들을 특히 에라스무스의 영향이었다. 물론 1525년에 이르러 그의 인간 의지의 전적 자유사상은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11)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수사학을 높이 평가했다. 그것은 종교 개혁적 사상을 글로 잘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Calvin의 문체는 수사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이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글을 매끄럽게 쓰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범세계화 현상으로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스위스 종교 문화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가?

2) 새로운 종교 문화의 특징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킨 새로운 기독교 문화는 위에서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1) 교회 전통보다는 성서 중심의 기독교의 변화이다.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바른 신앙과 그것의 실천의 기준과 근거는 성서 말씀이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성서는 교회의 근거이다. 성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도 이 성서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성서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지표가 되었다.

(2) 교회 의식 중심에서 개인의 내적 믿음으로의 변화이다. 성서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개인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 교회의 의식은 개인의 내적 신앙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후자에 종속한다.

(3) 사제 중심에서 믿는 개인 중심의 기독교로의 변화이다. 중세의 기독교는 성직자의 단체가 교회로 이해했으나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성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받아들였다. 한 개인은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4) 제도적 교회 중심에서 믿는 개인의 윤리적 실천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성서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5) 성경 말씀에 기초한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인다.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 경건의 삶에 머물지 않고 삶의 총체적 영역에 관여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문화 변혁의 사명이 강조된다.

(6) 인간을 속박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에서 인간의 존엄, 자유 및 자율을 중시하는 기독교로의 변화이다. 인류의 보편 가치는 신앙을 실천하는 영역이다.

5. 맺음말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4~15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어떤 한 분야에만 관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의 가치와 표현 양식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역적으로도 이탈리아에 제한되지 않고 전 유럽에까지 퍼져 온 유럽의 문명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러한 뜻에서 그것은 그 시대 유럽의 시대정신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세계화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도 *ad fontes* 정신의 실천으로 기독교의 고전이 히브리어 및 헬리어 성경과 라틴어로 된 교부들의 글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믿음의 본질을 개인의 내적 믿음에서 찾았고 교리 보다는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는가 하면 거룩을 세상의 일상적인 삶에서 추구하였고, 창조 질서를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며, 인간의 존엄성, 자유 및 자율을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종교 개혁적 사상을 글로 잘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수사학과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문주의 영향으로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사제, 교회의 제도 및 전통 중심의 기독교에서 성서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새로운 종교 문화를 창출케 하였다. 그것은 의식과 교리에만 머물지 않고 개인의 내적 믿음과 윤리 도덕의 실천을 강조한다. 한 걸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 및 자유 등과 같은 보편 가치를 추구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시사하는가?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고 사회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어떤 민족이나 문명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앙은 결코 어떤 종교 의식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근본이다. 그러나 이 신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뉘어져야 할 것이고 인류의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과 늘 함께 간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검색어 : 르네상스 인문주의 Renaissance Humanism

스위스 종교개혁 the Swiss Reformation

범세계화 globalization

르네상스 renaissance

인문주의 humanism

Renaissance Humanism and the Swiss Reformation

Hyun-Soo Shin Ph.D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Today's world is characterized as globalization. The highly-developed scientific technology brings the world into one network and one circle of cultur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 local culture is dependent upon time-spirit with which people in the world share and is based on all forms of human life and culture. How does this globalization work out the change of a local culture?

This article is to answer to the above question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It focuses on how the 14-15th century Renaissance humanism brought about the new religious culture of the Swiss Reformation. The paper demonstrates that Renaissance humanism is a phenomenon of globalization in that it was a time-spirit determining all contemporary cultures of the whole Europe including Italy, and that the movement as such a phenomenon brought about the 16th century Swiss Reformation.

The article first considers the basic nature of Renaissance humanism. The

Renaissance humanism movement concerned not only with the areas of literary and art but also with all realms of culture. It was an expression of time-spirit which settled on all ways of human life and value. In this sense, Renaissance humanism can be called a phenomenon of globalization.

Next, it explores the process of the spread-out of the movement.

Renaissance humanism did not remain only in Italy, but spread out into all other European countries.

First, Northern European humanism was decisively influenced by Italian humanism at every stage of its development. It adapted the latter to the real context of Northern Europe. Its basic ideals are *bonae litterae* -written and spoken eloquence, a religious program directed towards the corporate revival of the Christian Church, and pacifist. Its representative was 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1466-1536).

Second, the humanism movement of the Iberian Peninsula was literary, philosophical, and religious.

Third, the Italian humanism was decisive for the development of Central and East European humanism. Renaissance humanism influenced broadly and deeply the civilization of the whole Europe. It was contemporary time-spirit, thereby being the ground of cultural activities of European countries. This supports the idea that Renaissance was a phenomenon of globalization.

Finally, it examines how Renaissance humanism as a phenomenon of globalization effected the Swiss religious culture. First, the impact of Renaissance humanism to the Swiss Reformation was investigated. The impact was decisive. There follows an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religious culture which Renaissance humanism brought about in Switzerland.